

기업들, 여수엑스포 민자사업 외면 아쿠아리움·호텔 차질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차원 대책 시급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민자 유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박람회 성공 개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의 기업들은 수익성 문제로 사업 참여를 외면하고 있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최근 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 갑)에게 제출한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사업 추진' 자료에 따르면 박람회 주요 시설 가운데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4천 750억원으로 총 투자액(1조6천694억원)의 30%를 차지한다.

주요 민자 시설물은 중사주 주거단지(2천333억원), 아쿠아리움(1천억원), 숙박시설(924억원), 기업관(120억원), 유비쿼터스시스템(100억원), 마리나(100억원), 해상공연장(17억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자 시설별 투자 의향 기업들과의 면담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의향을 내비친 민간 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지역기업의 경우 단계에 투자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수익성 보장이 불확실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직위는 분석했다.

또한, 풍부한 여유자금과 장기적 투자 성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외국기업들도 역시 수익성 문제로 주저하고 있는 등 확실한 투자자가 없는 실정이다.

세계박람회 조직위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원인으로 관광·레저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투자 리스크가 높을 데다 여수 및 전남지역 수요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자 확보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올해까지 민자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 재정 지원 및 조직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공기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 확정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본 계획 재정립시 민자시설의 사후 활용 등을 고려, 세부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 제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직위측은 민자사업의 범위, 추진 방향, 사업별 수익성 등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주변지역 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민자 유치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의원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자 유치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재정립되는 기본 계획에 다각적인 민자 유치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북구의장 선거 '뒷돈' 수사 확대

의장 구속·구의원들 조사... 국회의원 부인 출름

광주 북구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가 해당 구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운)는 3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K 국회의원의 부인 J(55)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최윤초(63) 광주 북구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7월 3일 치러진 북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K 국회의원 부인 J씨에게 '의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J씨 지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맡은 유승룡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대가성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면서 "J씨의 담보 물건까지 확인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최 의장을 구속한 검찰은 최 근 상당수 구의회 의원들을 불러 하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조사를 벌이

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장이 J씨에게 건넨 8천만원 가운데 일부가 몇몇 구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계좌 거래 내용을 넘겨받아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선거를 앞두고 최 의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J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J씨의 남편인 국회의원 K씨에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돈의 일부가 남편에게 흘러들어갔는지 등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J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008 광주비엔날레 프레 오픈(pre-open)'과 '복덕방 프로젝트' 개막식이 열린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전시공간에서 행위예술가 한영애 씨가 시장의 변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인시장 경사났네"

광주비엔날레 '복덕방 프로젝트' 개막식 상인·고객·예술인 등 넘쳐... 모처럼 활력

07
 연례보고
 08

'시장'과 '예술' 선뜻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가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에서 한데 어울렸다.

재래시장의 쇠락과 불경기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하나의 예술 퍼포먼스다. 흥이 가게 골목에는 '흥어'를 소재로 한 작품이 설치됐다. 흥어 특유의 냄새를 현실의 역겨운 악취와 비교한 작품이다.

〈관련기사 16면〉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골목, 재래시장의 침체로 상인들에게 시름을 안겨주던 대인시장이 이날만큼은 활력을 되찾았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대인시장을 무대로 2008 광주비엔날레 프레 오픈(pre-open)과 '복덕방 in 대인시장' 전시행사 개막식이 열린 것이다.

70~80년대 대인시장을 주제로 삼아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미술 작품을 곳곳에 배치해 예술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일명 '복덕방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번 행사는 시장을 찾는 서민들과 지역예술인들간 교류를 위한 한마당 잔치.

"빈 점포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서운하고 가슴 아팠는데 이렇게 꾸며놓으니 제법 모양이 나네. 장사도 이처럼 잘됐으면 참 좋겠어."

이날 오후 6시 '제2의 변형'을 바라는 '시장 기원제'를 시작으로 행사가 개막됐다. 상인들은 부대행사로 경매시장에 소장품을 내놓기도 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참가자들에게 나눠 줘 흥을 돋웠다.

20년째 식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안심(여·68)씨가 토마토를 까며 말을 건넨다. 최씨의 가게는 같은 건물 4개의 점포 중에 유일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인시장의 빈 점포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옷가게 골목 빈 점포의 서터에는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가 바벨을 흔차

한 것"이라면서 방과같은 폭파했지만 원자로는 2~3개월 내에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폭스뉴스측에 말했다. /연합뉴스

北,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

美 폭스뉴스 보도

영변 핵시설 해체 작업을 중단했던 북한이 핵시설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고 미국 폭스뉴스 인터넷판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관련기사 6면〉

폭스뉴스는 북수의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과의 선행조건을 무시하고 영변 핵시설의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위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아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 및 원상복구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복구 작업의 착수 동기는 분명치 않으나 소식통들은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미루는

데 대한 항의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같은 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도 현재로서는 핵시설 해체 작업이 상당히 이뤄진 만큼 이번 복구 작업은 '상징적인 제스처'로 보인다고 방송은 분석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의 발언에 의도 "우리에게 새로 압력을 가하기 위

유망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IOPE